

# 「경남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청원서

수신 : 국회의장 귀하

창원특례시는 국민건강권 보장과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의 아래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간곡한 심정으로 올리는 바입니다.

경남의 인구는 전국 4번째로 많지만 의과대학은 단 1곳이며 (정원 76명),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 2.3명으로 (전국 평균 5.9명)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경남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74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의사인력 부족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며, 지역의료는 빠르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경남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었던 사망자의 수는 1,560명에 달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암과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각각 13.9%, 23.9%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의료소외지역이 되었습니다.

경남 창원 의대 설립은 도내 의사인력 확보와 의료취약지역 배치를 위한 지역 의사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여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수한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외부 인재 유입, 신성장 유망산업인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함으로써 지역소멸을 막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의 염원을 담은 74만 명의 서명부 (별첨)와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103만 대도시 창원시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24년 3월 6일

청원인 창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 재 호

창원 의과대학 유치 기획단 총괄단장 조 명 래

